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금향로가 차기까지

April 2019



관련 기사 : 36 페이지

contents

발행인단신

- 4 난민들을 모으시는 이유

터키는 지금

- 7 양카라의 종교교육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10 터키와 유럽연합, 이 결혼은 안전합니까?
12 난민 여성들이 요리를 통해 이웃과 유대관계를 맺는다
14 터키 AKP의 이의 제기로 지방 선거 결과 발표 연기
16 터키의 여론조사 결과는
에르도안 정부 쇠락의 시작을 뜻할까요?
19 터키 항공, 4월 6일 이스탄불 공항의 대대적 이전

안나의 고틀방

- 20 두 법의 충돌

중동지역의 오늘

- 22 지난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24 40년간의 이슬람 통치가 이란에 가져온 변화
28 ISIL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킹덤아웃리치

- 29 뷰육아다 사역 복음팔찌 도네이션 김은경 권사 인터뷰

파트너 칼럼

- 30 터키 현정부의 마지막 자자체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결과 정리 요약
34 영적 해방기를 맞이하고 있는 터키와 흑해지역
36 안디옥 이레학교: 시리아 난민자녀 사랑터

동역단체사역

- 38 하비비 인터뷰

2019년 4월 26일 통권 104호

발행인: 김진영
편집인: 이세웅
편집팀장: 민은경
편집부: 김륜, 이은옥
디자인: 민은경
번역: 김지영, 한국번역팀

발행처:  Silk Wave Mission

표지설명:
안디옥 이레학교:
시리아 난민자녀 사랑터 (p.36)

실크웨이브 USA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Tel: 714.999.8639
www.SilkWaveMission.com | info@silkwavemission.com

운영이사진:
이 사 장 김용훈목사 (VA 열린문장로교회)
운영이사 김진영선교사 (SWM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SEED 선교회)
강민수목사 (레익뷰언약교회)
권현천목사 (상항중앙장로교회)
김경진목사 (기쁜우리교회)
김성간선교사 (SWM선교회)
김성민목사
김영하목사 (방주선교회)
김태형목사 (ANC온누리교회)
김한옥목사 (베델교회)
남성수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방상용목사 (세리토스선교회)
손경일목사 (새누리교회)
이강택목사 (뉴잉글랜드은혜장로교회)
이두영목사 (오렌지소망교회)
이상훈목사 (주비전교회)
이진수목사 (뉴비전교회)
장경일목사 (원페밀리교회)
전진석목사 (VA 올네이션스교회)
정찬수목사 (빛나리교회)
홍원기선교사 (VA 올네이션스교회)
이세웅선교사 (SWM선교회)

국제/미국대표: 김진영 선교사(SWM 선교회, SEED 선교회)
순회선교사: 이문희 목사, 홍원기 목사

후원교회(연합기도운동/교회개혁운동)
남가주해오름교회 (송주환목사, Anaheim, CA)
뉴저지 예수마음교회 (이충남목사, Teaneck, NJ)
맥클린한인장로교회 (고현권목사, McLean, VA)
성광장로교회 (이철환목사, Los Angeles, CA)
엘에이연합기도회 (김수미목사, Los Angeles, CA)
재건남가주교회 (이병상목사, Hawaiian Gardens, CA)
주님세운교회 (박성규목사, Torrance, CA)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김동선목사, Temple, TX)
행복한교회 (전형진 목사, Colorado Springs, CO)

실크웨이브 KOREA
인천 서구 보석로 18번안길 33 1층
Tel: 010-2100-4237

운영이사진:
이 사 장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부이사장 김만섭 목사 (영동교회)
김요셉 선교사 (FOT, ACTS)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운영이사 김현중 목사 (맑은샘광천교회)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서요한 목사 (양주꿈찬교회)
이재진 선교사 (에클레시아선교회)
이찬영 목사 (덕계교회)
조승현 목사 (뉴웨이교회)
조지훈 목사 (기쁨이있는교회)
홍일남 목사 (새생명 교회)

한국대표: 이재진 선교사(SWM 선교회)

후원교회:
필그림교회 (노성용 목사)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 4월 터키, 이집트, 쿠르디스탄 아웃리치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잘 준비,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총 13팀과 약 150명의 참가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습니다.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소서!
- 이번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해 터키와 이집트, 쿠르디스탄, 이슬람권 각 지역에 더 강력한 영적 돌파(Spiritual breakthrough)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왕의 대로가 수축되도록
 - 아웃리치 팀을 인도하시는 현지 사역자와 팀 멤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현지인들을 섬기는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팀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예배와 기도, 전도와 섬김을 통해 팀이 밟는 땅의 강한 진과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이번 아웃리치 사역을 통하여 현지 사역자들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동역하는 38유닛(Units)의 현지 교회개척자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개척 운동이 일어나도록
 - 아웃리치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온전한 사랑과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참가자들의 가정과 자녀, 교회와 일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천군천사로 보호해 주시도록
 - 아웃리치 사역 중 어떤 사고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고 모든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하게 잘 감당하도록
 - 터키와 이슬람권을 향한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터키와 이슬람권 선교, 특히 난민들을 향한 영적 대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도록
- 4월 아웃리치사역과 그 후, SWM 리더십의 모든 사역 일정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4/22(월) - 5/1(수): 킹덤아웃리치 (터키, 이집트, 쿠르디스탄 + 4월 30일: 1일 연중회 @ 이스탄불)
5/1(수) - 5/5(주일): 페르시아어권CP 순회사역(김성간/홍원기/이원철/탁요셉 @볼루, 뒤즈제, 존굴닥, 김진영/이세웅/김종훈 @흑해권)
5/6(월) - 5/9(목): 터키어권 및 아랍어권 교회개척자 수양회(강사: 홍원기, 방상웅) @ 이스탄불
5/9(목) - 11(토): 터키 동부 반 교회 방문 사역 (방상웅/방휘경, 홍원기/김진영, 이세웅/김성간/이원철)
5/12(주일) - 16일(목): 아르메니아(백승환 선교사) 방문 사역 (김진영, 김성간, 이원철, 이세웅)
5/17(금) - 19(주일): 이스탄불 교회 방문 & 사역자 만남 (김진영, 김성간, 이원철, 이세웅)
5/20(월) - 23(목): 이집트 방문 사역 일정 (김진영, 김성간, 이원철, 이세웅)
-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들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눈을 들어 희어진 추수밭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보내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난민들을 모으시는 이유



김진영 선교사
SWM 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pkyoyo@gmail.com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였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교와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그들의 난 곳 방언을 듣게 됨으로 '어찌 된 일이냐'하고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행 2:8).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그레데와 아라비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바데 - 이란 동쪽과 아프카니스탄, 메데 - 쿠르드, 엘람 - 이란, 메소보다미아 - 이라크, 갑바도기아 - 터키 중부, 본도 - 터키 북부 흑해, 아시아/부르기아 - 터키 서부, 밤빌리아 - 터키 남부, 애굽 - 이집트, 루레네 - 리비아, 그레데 - 크레타섬, 아라비아 - 아라비아반도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그리고 개인적 이유로 자신의 조국과 고향을 떠나는 난민들, 특히 전쟁과 테러로 인해 강제적으로 흩어져야하는 수많은 난민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프간, 리비아 난민들이 주위의 나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IS 만행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들은 전 국민의 50%가 넘는 약 1,100만 명의 난민들이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터키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중의 150만 명 난민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키에는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온 약 450만 명의 난민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민을 터키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슬림 난민들을 이곳 터키와 주변나라로 흩어지게 하시고 모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때문입니다

터키는 이슬람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터키로



들어온 난민들은 인권과 노동 착취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엔 산하의 난민들은 인권보장과 종교자유를 보장받습니다. 난민들은 과거 그들의 나라에서 이슬람 종교의 속박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터키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난민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기회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회이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황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아주신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수의 밭이 희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널려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에스겔 3:17-19)

여호와와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로 인해 죽겠지만 만약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그들의 피 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심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와 문화가 다른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두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4:18).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Comfort Zone과 Safe Zone에서 담대하게 나아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 전파는 우리들의 특권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난민들이 사용하는 아랍어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의 언어), 쿠르드어 (쿠르드 난민들의 언어), 페르시아어 (이란 난민들의 언어), 다리어 (아프간 난민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된 전도지와 성경책을 나누면 그들은 그것을 읽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섬기면 그들은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이미 난민들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와 교회 개척자들과의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터키인들과 난민들 가운데 복음 전도자/교회개척자로 헌신한 38 가정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들을 통해 사도 행전 29장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민들 가운데
복음전도자와
교회개척자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앙카라의 종교 교육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글: 시벨 허터즈

(알-모니터 터키 펄스, 3/12/2019)

번역: 한국 번역팀



앙카라의 끊임없는 종교교육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교학교 입학자 수는 정부의 목표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REUTERS/Unit Bektas)

2014년 11월 18일 터키 앙카라에서 휴식을 위해 교실을 나서는 테브피크 일레리 이슬람 신학교 학생들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터키의 정의개발당이 16년간 집권하는 동안 종교학교를 확장시켜왔습니다. 이것은 터키 사회가 이미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 또 하나의 이념적 양극화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공립 이슬람 신학교는 광범위한 코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가 터키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중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약 627,000 명의 학생들이 현재 전국의 1,605개의 이슬람 신학 고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계속적으로 종교학교에 투자함으로 이슬람 종교학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이 학생 수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통계치가 이에 대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2-2013년, 터키에는 708개 이슬람 신학 고등학교가 있었고, 약 38만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슬람 신학교가 중학교 수준에서도 허용되었습니다. 이후 학교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학생 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015-2016학년도에는 전국에 이슬람 신학 고등학교 1,149개가 문을 열었고, 학생 수는 677,205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듬해 학교의 수는 1,452개로 증가했지만, 학생 수는 645,318명이었습니다. 2017-2018년에 이슬람 신학 고등학교는 1,605곳으로 더 늘었지만, 학생 수는 개교한 고등학교를 포함해도 627,503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슬람 신학교 재적자 수는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야 셀추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이슬람의 근원을 진실하게 소개하기 때문에’ 이슬람 신학교를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입학자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설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페라이 아이테킨 아이도간 교육과학노동자무역연합 의장에 따르면, AKP는 학생들을 이슬람 신학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졸업생 진학을 결정하는 전국 연례 시험을 언급하며, 그녀는 언어, 과학, 직업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슬람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부유층 학생들은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 최근 헤드라인을 장식한 — 종교학교 입학자의 수는 앙카라의 목표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새로운 입학자를 위해 224,950명의 지원군을 배정했지만, 실제로 등록한 학생은 117,662명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도간 씨는 자녀들의 직업적, 경제적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들이 이슬람 신학교를 떠나 정규 학업 교육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신학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도 작년 시험에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난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트만, 부르사, 코카엘 리, 산리우르파 지방에 있는 몇몇 학교들은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친정부 언론은 학교가 문을 닫지 않고 새 건물로 이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논란을 제하고도 교육부가 기존의 고등학교를 이슬람 신학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거점인 이스탄불 베식타시 지구의 이스마일 타만 학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학교를 이슬람 신학교로 개편하자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지난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탄원서를 이스탄불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결정을 보류하고 있고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3월 4일 학교 밖에서 다시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공화당 국민당의 일디립 카야 부의장도 학부모들을 지지하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카야 씨는 알 모니터에 대해 학교를 변화시키려는 근본적인 동기는 그 지역의 세속적인 구조를 잠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교 주변 지름 2km(1마일)에 13개의 이슬람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두 개의 정규 학교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학교들을 이슬람 신학교로 바꾸려는 이 욕구의 이면에 어떤 논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유일한 논리는 그 지역을 보존하려는 욕구입니다. 이슬람 신학교는 필요가 없으며, 그들은 교육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동기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 학부모들도 기존 학교를 이슬람 신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며 비슷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슬람 신학교의 교육의 양뿐 아니라 교육의 질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교육 전략 개발부의 2018년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등교육의 연말 평균은 100점 만점에 76점, 이슬람 신학교 평균은 65.9점으로 점수 뿐 아니라 결석률도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종교 학교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19년 투자 계획에 162개의 이슬람 신학 고등학교를 세우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4억 6천만 터키 리라(8,41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아이도간 씨는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우리는 작년 설문 조사를 통해 교육에 관련된 터키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하든 자녀들의 학업성취를 위해 유리한 방향에 서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벨 허터즈는 수상 경력이 있는 터키 언론인으로 인권과 사법, 법률 문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국지 에브렌셀, 타라프, 사바 그리고 하버, 투르크와 ANKA 통신사 기자로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녀는 2004년에 메틴 고크테페 저널리즘 상과 무사 앤터 저널리즘 상을 받았고 2005년에는 터키 저널리스트 협회에서 입상하였습니다.

2013년 그녀는 터키에서 발생한 기독교인들의 살인에 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소수와 해결되지 않은 살인에 대한 그녀의 글은 페일리 벨리 인권 블로그에 실렸습니다.

<출처: <https://www.al-monitor.com/pulse/originals/2019/03/turkey-akp-supported-religious-education-drive-stumbling.html#ixzz5iGcu1PSs>>





터키와 유럽연합, 이 결혼은 안전합니까?

글: 부락 베크딜

(게이트스톤 연구소, 12/27/2018)

번역: 한국번역팀



작년 6월 이스탄불,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규모 선거 포스터 아래 있는 사람들. 작년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 중앙은행의 정부개입을 발표한 뒤 리라의 가치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출처: Chris Mcgrath/Getty Images

터키 정부가 지난 월요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는 경기침체로 2분기 연속 경제성장 실패를 기록했다. 이는 이달 말에 있을 중요한 지방선거에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에르도안은 18년간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터키를 유망한 신흥시장으로 만들어냈지만 지난 몇 년간의 성장의 대부분은 제재 없는 차입을 통한 것이었다. 또한 2018년 중반부터 전세계 투자자들의 우려와 소비자 수요의 급감으로 인해 리라의 가치 또한 급락했다. 터키 통계청은 조정 후의 터키의 국내 총생산(GDP)이 지난 해 4/4분기 기준 24%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같은 해 3/4분기의 1.6% 하락세로부터 이어진 결과다. 이러한 하락세가 2분기 이상 이어지면 경기 침체로 진입한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터키의 수출 수요가 감소하고 기업의 신용 비용이 상승했다. 이탈리아가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고 독일 또한 침체에 가까워짐에 따라 터키의 가장 중요한 시장인 유럽연합(EU)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경제학자들은 범람 지상주의와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터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수개월 동안 경기 침체에 대해 경고해왔다. 터키의 성장은 저렴한 외국 신용을 사용해 부분적으로 촉진되었지만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가 금리를 인상한 이후로는 다른 신흥 시장과 마찬가지로 신용 흐름이 느려졌다. 이에 정부는 교량, 지하철,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이스탄불 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외화 차입을 했는데 이는 리라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채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말이 되면 터키 민간 기업들은 외채로 2천 5백억 달러이상, 곧 터키 국가 경제 규모의 3분의 1을 빚지게 된다.

2018년까지 터키는 28%의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리라의 약세로 인해 중반기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투자 기관들은 터키의 신용 등급을 수정했으며 터키 은행들은 대부분의 대출을 중단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경계하고 상승하는 금리와 주식으로 많은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터키와 다른 신흥시장에서의 차입은 더 비싸졌다. 또한 터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터키 철강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다른 국가에 비해 두 배 정도인 50%이다.



지난 해, 건설중인 이스탄불의 신공항. 본 프로젝트는 터키 정부가 투자하는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사진 출처: Emrah Gurel/연합통신

한편 2018년 마지막 몇 달간 파산이 이어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몇 달간 20%를 유지되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금을 배제하고 터키를 자금 초기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외하고 부채를 상환했다고 강조했다. 대신 그는 아랍 걸프국가들로부터 투자를 구하고 일부 공공 지출을 줄였다. 2년 전 그를 향한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포함한 더 많은 권한을 정부 기관에 집중해왔다. 그는 6월에 재선되어 정부의 모든 부서를 대통령직 아래에 두었다. 그는 그의 사위인 베라트 알바이라크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했고 그를 통해 중앙은행을 면밀히 통제해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선거 직전에 중앙은행에 더 많은 정부개입을 발표했는데 그 후 리라의 가치가 폭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폭락을 막았지만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터키 통화는 2018년 그 가치가 28% 떨어졌다.

터키의 통화 감소와 다른 요인들로 인해 터키의 재정 형편은 타격을 입었다. 정의개발당의 지방선거 운동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싼 채소를 판매하는 시장을 전국에 열기도 했다.

〈출처: <https://www.nytimes.com/2019/03/11/business/turkey-recession.html>〉





난민 여성들이 요리를 통해 이웃과 유대관계를 맺는다

글: 인지 하잘 외조잔
(휴리예트 매일 뉴스 네브쉐히르,
3/11/2019)
번역: 한국 번역팀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인해 도망쳐 터키에 온 다양한 배경의 난민 여성들은 현지 여성들과 강한 우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터키에서 평화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망명자 및 이주자 연대 연합이 중앙 아나톨리아주 네브쉐히르에서 개최한 행사에 터키에 살고 있는 약 2천 명의 난민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약 6년 전 터키에 온 이후로 계속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상태가 꽤 좋지 않아 그 안에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만나고 있는 이웃과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아 새 집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웃들과는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후다 압둘라(52세, 시리아인)는 3월 9일 행사에서 휴리예트 데일리 뉴스에 말했습니다.

터키 남동부 가지안텝에 거주하고 있지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온 압둘라는 요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뿐 아니라 요리를 하기 위해 모인 여성들과 함께 중요한 이슈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현지 여성들과 모여서 여성에 관한 많은 문제를 논의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시리아 전통 음식을 요리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많은 가정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이며, 페미니즘 지지를 위해 난민 여성들은 투르크인들과 많은 접촉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곳이 훨씬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터키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24세 아프가니스탄 여성 미나바르하크시는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약





3년 전에 어머니와 10명의 형제와 함께 네브셰히르로 피난했습니다. 바르하크는 자신의 가장 큰 꿈은 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터키에 있는 현지 여성들과 상당히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친구도 많고 이웃도 많아요. 우리는 정말 잘 지내고, 서로에게 방해받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말하며 편견이 없는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터키는 여성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또한 여성들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우린 여기 있고, 강합니다'

터키에 있는 난민 여성들은 터키 사회에 쉽게 융합하기 위해 터키 여성들의 전통 모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터키와 근접 국가 간의 문화적 친화력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터키 이웃들이 있고 우리는 매주 모여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함께 먹어요. 그들은 우리 집에 와서 터키 음식을 요리하고, 저는 그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위해 시리아 전통 음식을 요리합니다." 라고 2년 반 전에 가지안텝에 정착한 시리아 알레포 출신의 투르크인 사피예 하산이 말했습니다. 하산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자녀 중 한 명은 나이가 10살인데 최근 암을 극복했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저희는 재정적으로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 외에는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있고, 우리는 강하며,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터키인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대해 하산은 "그들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것이 그녀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터키가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난민들을 정말 친절하게 대합니다"라고 시리아 출신 미망인 새라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8명의 아이와 함께 가지안텝에 와서 터키인들과의 좋은 관계 덕분에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요리 강좌에서 만난 터키 친구들이 있어요. [메시지 플랫폼] WhatsApp에 대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터키 여성들과 자매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녀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터키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리고 주로 시리아와 같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국제 보호 신청을 받은 세계 제 3의 나라입니다.

<출처: <http://www.hurriyetdailynews.com/refugee-women-create-bond-with-neighbors-over-cooking-141796>>





터키 AKP의 이의 제기로 지방 선거 결과 발표 연기

여당의 이스탄불 시장선거
이의 제출로 결과 발표
일주일 연기

글: 배단 맥컬란
(앙카라, 가디언지 4/2/2019)

번역: 한국 번역팀



에르도안 대통령(오른쪽)과 이스탄불 시장 후보 이을드름 전 총리(왼쪽)를 나란히 배치한 집권당 AKP의 선거용 홍보물. 사진 참조: Erdem Sahin/EPA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지방 선거, 곧 막상막하였던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의 공식 결과에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이의를 제출해 결과 발표가 일주일 연기되었다. 터키의 선거 관리위원회 의장은 지난 화요일 30개 시, 51개 도 및 922개 구역에 대한 시장 선거와 시의회 의원 선거가 이번 주간에 평가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금요일에 이사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곧 4월 11일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요일 선거에서 비공식적인 초기 결과가 수도인 앙카라와 문화 및 상업의 중심지인 이스탄불에서 야당인 인민 공화당 (CHP)의 승리를 나타낸 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터키 선거,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말기에 타격 입히나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최종 승리한다면 여당뿐 아니라 터키의 급증하는 경제 위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활용하고자 힘을 합친 야당 연합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앙카라에서는 CHP 의 만수르 아와시 후보가 50.9%의 지지율을, AKP 후보 메흐메트 외즈하세키는 47.1%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결과로 반세기가 넘는 이슬람 정당 통제권이 종식될 전망이다. 이에 집권당인 AKP는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CHP의 이스탄불 시장 후보 에크렘 이마모을루가 앞서면서 공식 집계가 여러 번 중단되었던 이스탄불에서는 최종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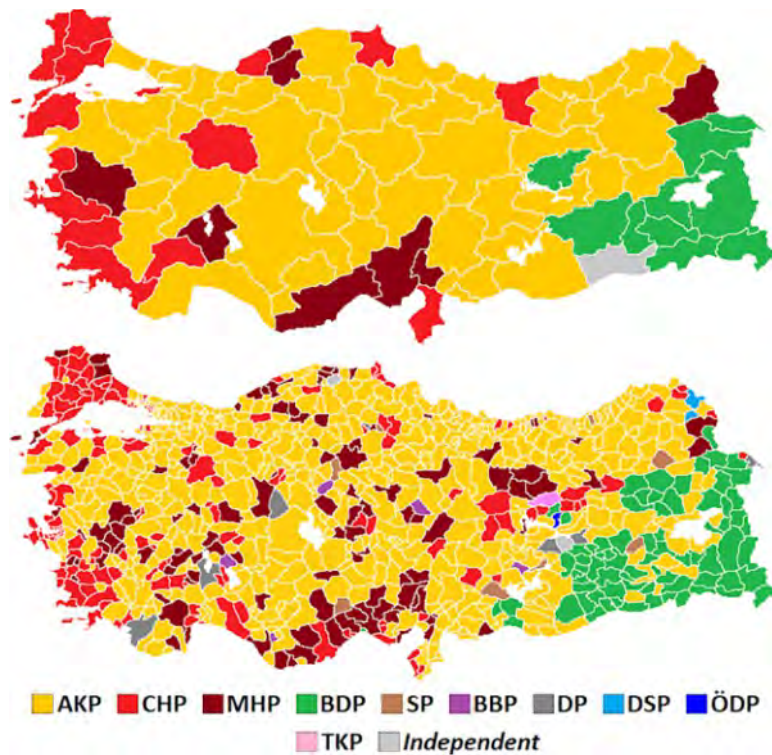


AKP후보자인 비날리 이을드름 전 총리는 이마모을루가 약 2만 5천표를 앞섰다고 인정했으나 CHP가 앞서나간 건 30만의 무효 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AKP는 이스탄불의 39개 지구 전체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휴리예트 신문이 화요일 보도했다. 이마모을루 후보가 트위터 프로필에 본인을 이스탄불의 새로운 시장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양 정당이 모두 승리를 주장했다.

AKP가 전국 평균 득표수의 50% 이상을 차지했음에도 야당의 승리가 예상되었던 것은 터키의 엄청난 친정부 미디어와 AKP의 선거 횡령 혐의 및 불법 쿠르드 노동자당 (PKK)와의 연관을 주장해 다수의 동남아 쿠르드인 반대파 후보들이 체포된 점 등으로 보인다.

보고된 결과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여당 내 긴장감을 자극하고 터키의 경제문제를 해결 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터키는 2월 공식적인 경기침체에 들어섰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약 20% 상승했다.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pr/02/turkey-local-election-results-delayed-akp-lodges-objections>〉



<https://maviboncuk.blogspot.com/2019/04/2019-local-elections-winners-according.html>





터키의 여론조사 결과는 에르도안 정부 쇠락의 시작을 뜻할까요?

정의개발당이 의석 수를
잃은 것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전례 없는 비난이며,
이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

글: 휴리예트 데일리 뉴스
(앙카라-아니톨루 에이전시
3/11/2019)
번역: 한국 번역팀



에르도안 대통령이 결과가 발표된 뒤 앙카라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는 정의개발당의 승리가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 알리 어날/AP

레셉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지방선거를 자신의 개인적 지도력에 대한 국민투표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정의개발당이 이스탄불을 제외한 터키의 12개 주요 도시 중 7개 도시에서 통제권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2003년부터 터키 정치를 지배해온 그는 패배에 익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패배자입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비판을 따르지 않으며, 반대에 대한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84.5%의 투표율을 보인 정의개발당(AKP)에 대한 큰 변화는 전례 없는 비난에 해당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혼자서 AKP의 캠페인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공정성의 절차를 버리고 대통령 지위를 악용해 투표 전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는 AKP의 승리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자신의 반대자들이 테러리스트들과 결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비양심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달 집회에서 있었던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의 살해에 대한 비디오 영상을 상영함으로써 사상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번 공격은 이슬람교도들, 특히 터키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서부 캠페인의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2016년 쿠데타 시도 실패 이후 터키의 최대 정치적 충격입니다.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대규모 체포를 명령하고 미군 등을 포함한 외국계 음모 세력을 비난했습니다. 권력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전국적 숙청을 감행한 데 대한 구실로 쿠데타를 계속 활용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보복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모는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AKP는 반대자들을 이기기 위해 친정부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취입하기 전에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거나 지역 선거 절차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별히 터키 남동부의 쿠르드족 지역에서 열린 축하 행사를 철회하려 했는데, 그 지역은 쿠르드족 인민민주당 (HDP)이 득세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HDP가 불법 쿠르드 노동자 당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HDP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테러 혐의에 대한 HDP 활동가들의 사전 조사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HDP의 가장 카리스마 있는 리더였던 셀라 하틴 데미르타슈의 구속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2014년 전국 선거에서 에르도안에게 자금을 받아 출마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위협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데미르타슈는 지난 2016년부터 "테러 선전"을 퍼뜨린 혐의로 수감돼 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의 석방 요구는 묵살됐습니다.



이스탄불 시민들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시장 후보 비날리 울드룸의 사진이 걸려진 AKP 광고판을 지나간다.
사진 : 무라드 세저/로이터

지난해 단계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집행권을 얻은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부와 군, 법원 등 터키 기관을 이미 막강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독립 언론인들이 면밀히 조사하는 능력은 거의 무너졌고, 많은 언론인들이 부패의 증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에르도안은 이제 그의 손아귀를 더욱 조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앙카라와 다른 도시에서의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의 승리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당의 베테랑 지도자인 케말 클르츠다르오울루는 AKP의 끝없는 조롱과 위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복수의 수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CHP의 성공은 모든 야당을 활성화시키고 전년도에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터키의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에르도안 정부 쇠락의 시작을 뜻할까요? 그것을 말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그는 2023년까지 전국적인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재력을 거듭 입증했고, 주로 농촌을 중심으로 한 기반 지지도 약 44%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통제





할 수 없는 한 가지 와일드 카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정적인 요소가 된 주말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인상을 막고, 고급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부채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터키를 경기침체로 몰아넣고, 통화, 인플레이션, 실업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치솟는 음식 가격과 가정 식료품의 부족은 어느 정치가와 어느 곳에서나 문제가 되며 심지어 터키 술탄에게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양파의 가격이 에르도안 정부의 몰락과 관련이 있는 지도 모릅니다.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pr/01/is-turkish-poll-shock-the-beginning-of-the-end-for-erdogan>〉





터키 항공, 4월 6일 이스탄불 공항의 대대적 이전

글: 휴리예트 데일리 뉴스
(양카라-아니톨루 에이전시
3/11/2019)
번역: 한국 번역팀



터키 항공은 새롭게 문을 여는 초대형 이스탄불 공항으로의 이전을 위해 아타튀르크 공항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터키 항공 여객기는 4월 6일 토요일 새벽 2시(그리니치 표준시 GMT 4월 5일 23시)의 항공편이라고 3월 11일 발표했다.

터키 국영 항공사는 현지 시간 4월 6일 오후 2시(그리니치 표준시 GMT 오전 11시), 아타튀르크 공항에서 예정된 모든 항공편 운항을 이스탄불 신공항에서 재개할 예정이라고 트위터에서 발표했다.

이스탄불 신공항은 터키의 창립 95주년인 2018년 10월 29일 공식적으로 개장한 “세계의 새로운 허브”이다. 완공되면 4단계와 6개의 활주로를 가진 본 이스탄불 신공항은 매년 1억 5천만명의 승객을 맞이하게 된다. 최대치로는 전 세계 300곳 이상의 취항지와 100개 이상의 항공사를 맞이하는 세계적인 항공 허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터키 항공은 1933년 5대의 항공기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승객기 및 화물기를 포함, 33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124개국 306개 목적지를 운항하며 작년에는 7천 2백 20만명의 승객과 82%의 좌석 점유율을 기록했다.

〈출처: <http://www.hurriyetdailynews.com/turkish-airlines-big-switch-to-istanbul-airport-on-april-6-141800>〉



안나의 골방
4월의 기도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22

Cast your cares 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never let the righteous fall.

Psalms 55:22, NIV

© GODpeople.com

두 법의 충돌

글 : 강안나 사역자 (이스탄불, 터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롬 7:22-25). 새로운 시즌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또 충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되는 그 날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아직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부활체를 입지 않았기에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두 법의 충돌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100% 하나님께 속한 바 되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은 어찌하든지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려니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기 원하지만, 내 지체 안(혼과 육)에 있는 죄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육신의 생각과 구속되지 않은 혼의 감정을 따라 행하도록 조종합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아예 모든 죄의 법을 초월하여 전적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든지 아니면 아예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가 되어 모든 영·혼·육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 때 두 진영의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사이에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법 사이에서 강한 충돌을 경험하며 너무 힘든 시

간을 보낼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시즌에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몸을 맡기며 부드럽게 넘어가는 파도타기를 하는 듯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즌이며, 이러한 시즌을 맞이할 때는 마땅히 우리 안에 충돌과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일 것입니다.

주께서 새포도주, 새 영, 새로운 계시, 즉 새로운 하늘의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 안의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더 높은 차원과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는데 이전과 다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해되지 않는 어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하십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고, 잘못 쌓아진 삶의 모든 기반들, 굳어진 생각들, 삶의 틀들을 방망이 같은 불같은 말씀을 보내셔서 부수시기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즉 육신의 생각과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내면은 계속적인 두 진영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이런 충돌 상황이 일어났을 때,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이 이런 충돌과 불편함과 진동과 혼란스러움을 갖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두 법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남을 탓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부르심에 대한 의심과 낙담이 되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많은 거짓된 속삭임들이 뒤덮어버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면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이 부러워지기도 하고 때론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해져 서성거리기도 합니다.

이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거장이었던,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삼천 천에도 올라갔던 사도 바울마저도 로마서에 고백하기를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오히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 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두 법이 내 안에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영의 생각을 좇아서 살 것과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살아가야 할 것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법을 좇아서 행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속입니다. 육신의 법 즉,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마치 그 법이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연약한 영역을 건드리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멈추게 하려고 속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진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 위에서 있음을 기억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내 혼의 영역은 감정이 상할 때 느끼는 감정의 무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느끼고 받았던 그런 부정적인 것이 옳다고 주장하여, 나를 더 끝없는 감정의 구렁텅이와 진리를 거스리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니오(No)'라고 말하며 영의 생각 즉 생명과 평안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

는 내 안의 하나님의 법을 붙잡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법에 서서 영의 생각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향해 '예(Yes)' 라고 고백할 때 어느 순간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은 힘을 잃어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내 속사람은 강건케 되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즐거움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충동을 자주 경험합니다.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충동의 시간에 우리 각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충동은 우리를 더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영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동, 진동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영원한 것들을 영존케 하시며, 무너지고 파하여져야 할 것들을 드러내는 시준이어서 감사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충동의 시간에 우리의 영과 육체가 참으로 피곤함을 경험하는데,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성령이 불어오는 새 바람에 우리가 거슬러서 반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과 육이 영을 다스리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과 혼은 피곤함이 더할 것입니다. 그럴때면 이런 상황을 빨리 깨닫고 주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두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에 영을 거스리려고 했던 육신의 생각들을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이 불어오는 새 바람은 내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시준을 아시고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에 우리의 전부를 던져서 그 영적인 바람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는 바람이고 새로운 느낌이 들지만 성령께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의 혼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기에 무조건 행복하고 그 바람을 타야 합니다.

그럴때 우리의 영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질 것이며, 그럴 때 우리가 빛과 생명과 평강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이며, 그럴 때 우리를 새로운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이끄시는 그곳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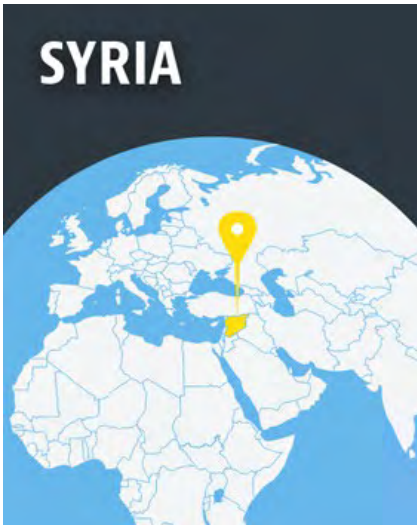
할렐루야!!!





지난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글: 월드 워치 모니터 시리아
(3/16/2019)



시리아 내전이 마지막 해로 접어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재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5일 반정부적 그라피티가 불씨가 되어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50만 명 이상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떠났고 그들 중 절반은 나라를 떠났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리아 난민 100만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이웃 국가 요르단에서 양국 간 중요한 국경선이 열린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고국으로 귀환한 사람은 몇 천 명에 불과하다고 알-모니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외교 정책에 따르면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었는데 그 박해가 여전히 거기에 있음을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사라지거나 군대에 징집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사태가 발발했을 때 특히 이슬람 무장세력이 나라 안을 휩쓸어 마을과 도시를 점령했을 때 그곳을 떠나 피해 갔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인구 2천2백만 명 중 8-10%를 차지했으나 그 이후 80%가 퇴거했다고 2017년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북쪽으로 370km 떨어진 알레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버지 압달라 목사(47)가 있습니다. 이 목사와 아내 아그나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시리아를 떠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남아서 성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종교 자유 자선단체인 오픈도어스와의 인터뷰에서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 성도 3명이 신앙 때문에 반군에 납치됐다"라며 "어느 순간 교회는 격렬한 전투로 인해 포위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만 하고, 많은 이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치거나 혹은 우울증과 목적 없는 삶 때문에 집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내들은 재정과 양육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알레포에서 청년들이 떠나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프라에 큰 문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이 든 많은 사람들을 부양할 자녀들이 없고, 교회는 노화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뉴스 사이트 피데스의 보도에 따르면 다마스쿠스의 마론파 주교 사미르 나사르는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쇠퇴하는 소수민족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시리아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 뉴스 사이트 제니트가 인용한 시리아 청소년은 "나는 우리 국민들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알 수 있는 알레포, 특히 그 교회들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8세의 가비 코라지안은 전쟁 전에 가족과 함께 알레포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마스





쿠스로 피난했습니다. 그의 형제들 중 두 명이 군대에 복무하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렸지만, 우리가 만난 그 상황이 저를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저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동생이 죽은 이후로, 우리는 모두 안전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다마스쿠스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외과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며 돕고 싶습니다."

반군 세력이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 납치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의문 가운데 있습니다. 납치된 기독교인들에는 압달라 목사의 교회 성도 세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치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2013년 IS 무장단체에 납치된 예수회 달올리오와 시리아 정교회 대주교 마르 그레고리오스 요하나 이브라힘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레바논 신문인 알 아크바르에서는 이들이 시리아의 마지막 거점인 브뤼셀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억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은 유명 교회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IS 점령 중 납치되거나 사라진 후 실종되었습니다" 라고 기독교 자선단체 오픈도어 세계관측연구소의 분석가인 헨리에트 카츠가 월드워치 모니터에 말했습니다.

"IS가 시리아에서 마지막 보루를 빼앗길 때 많은 이들이 그들의 상황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지역 밖으로 오래 전에 이송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압달라 목사는 알레포 공동체의 재건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된 문제는 장기 자금 확보입니다.

"다른 비정부기구들은 시리아 전역에 원조를 중단시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이체를 중단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고, 언론도 시민들이 견디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별로 조명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worldwatchmonitor.org/2019/03/christians-face-uncertain-future-as-syria-enters-possible-last-year-of-civil-war/>>





이란혁명 40년 그때와 지금 시리즈 : 40년간의 이슬람 통치가 이란에 가져온 변화

글: 호르무즈 샤리아트
(이란 얼라이브 선교회,
호르무즈 샤리아트 블로그,
3/8/2019)

번역: 김지영(새누리교회)

세계에서 이슬람 성직자에 의해 통치를 받는 유일한 국가는 이란이다. 40년 전 2월, 이란의 세속주의 지식 엘리트층과 보수주의 성직자들은 동맹을 맺고, 서구의 지원을 받는 샤 모함마드 레자 팔라비 왕조를 몰아내었다. 귀족들과 성직자들 모두 외세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며,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국고의 낭비를 발생시키는 대형프로젝트들을 중지시킴으로 경제 안정화를 이루고자 했다. 또한 그들은 정부의 부패와 왕조의 정치적 탄압으로 빼앗겼던 권력과 부를 되찾아오기 원했다.

혁명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왕조를 무너뜨리자마자 이란을 이슬람 공화국으로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곧이어, 종교주의 우파는 함께 혁명을 일으킨 세속주의 죄파를 제거하였고 왕이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뒤집어 엮었던 보수주의 종교적, 사회적 가치로의 회귀를 이란 국민에게 강요하였다. 지난 한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자국이 보수주의적인 농촌 사회에서 현대적 도시 산업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목도했던 일반 대중들은 혁명이 가져온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였다.



이란, 카산 : 이란의 가정들은 심해지는 인플레이션, 실업,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고통 당하고 있다. 사진제공 : 그리그보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개인과 가족의 삶을 포함한 사회 제반 분야에서 이슬람 법을 실행했고, 지난 40년간 이란 국민들은 이슬람 신정 정치를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

지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블로그 연재를 통해, 현재 이란의 영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내가 왜 이슬람 통치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고 믿는지 나누고자 한다.





1장: 현재 이란의 영적 상황

40년간의 신정정치를 지나며 이란 국민들의 영적인 사고체계와 행동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슬람을 거부함

이란 국민들은 지난 40년간 이슬람 통치가 시행되는 것을 보아왔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히려, 이슬람 때문에 지금의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이슬람과 이슬람법의 통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슬람을 거부하는 현상은 하루 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 이것은 결코 고통과 불의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내린 신중한 결정이다. 이슬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시청자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전해 듣고 있다. “우리 삼촌은 일년 전만해도 독실한 무슬림이자 친정부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슬람은 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슬람 거부 현상은 워낙 광범위하고 심각해서 나는 이란 전체가 이슬람으로부터 돌아서고 있으며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커져가는 세속주의

이란 국민들은 이슬람을 거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세속주의에 끌리고 있다. 그들은 더이상 종교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삶을 갈망한다. 그들에게 있어 자유로운 삶이란 욕망이 이끄는대로 사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슬람 독재의 억압에 대한 철저한 반향으로 부도덕, 마약, 섹스, 쾌락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이슬람을 최고의 종교로 세뇌 당하며 강요 받았기 때문에, 이슬람을 버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독교가 이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는 기독교를 포함해 조직화된 기성 종교 모두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위성 방송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다.

기독교의 성장

현재 이란 국민들은 이슬람보다 기독교를 더 존중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란이 여전히 무슬림 국가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슬림으로 태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현상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 한 무슬림이 이란의 이슬람 성직자들에 대해 올려놓은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나는 당신 같은 무슬림과 천국에 가느니 차라리 기독교인들과 지옥에 가겠다.” 방송매체들, 특히 위성 방송은





기독교에 대한 다음과 같은 거짓말과 오해들-기독교인들은 삼신을 숭배하며 신성모독자
들이고 술취해 방탕하며 부도덕적인 삶을 산다-을 바로잡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오퍼
레이션 월드 리서치에 따르면, 이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증가율은 연간 19.6%로 이란
은 단연코 세계에서 기독교 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이란에서의 핍박은 기독교의 성장에 대응하는 정부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최대
한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저항세력을 짓밟아야만 한다. 자국 국민이 무기를 들고 무력 혁
명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란 정부는 이란이 대체로 통제 가능한 국가
라 믿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미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이란 정부는 기독교의 성장을 멈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최대한 성장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며 예배로 모
이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다. 두려움을 주고 성도들을 고립시켜 기독교 전파를 지연시
키려는 작전이다.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젊은 세대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 따라서 그들은 정부를 그다지 두려
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슬람이 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기에 이슬람을 거
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다. 변화를 원하지만 정부를 전
복시키기 위해 폭력을 쓰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
각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 자살, 마약중독, 성적 부도덕이 이란의 젊은이들에게 만
연하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체포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것조
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많은 이란의 젊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나는 죽은 상태였으니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저들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나
와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두려워 합니다.”

위성방송의 역할

이란 국내 미디어와 통신에 대한 정부의 집착에 가까운 통제에도 불구하고 위성방송은
이란인들의 안방에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철저하
게 인터넷을 감시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온라인 검색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집
에서 몰래 40여개에 달하는 불법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안전하다. 이란 국민들은 일주
일에 7일간, 24시간 내내 위성을 통해 최근 뉴스와 반정부적인 내용의 방송들을 시청할





수 있다. 위성방송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 당하는 기독교인들을 강건하게 세우는 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란에는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3백만 명 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조사자에 따라 적게는 백만 명에서 6백만 명까지도 추산할 수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평생 한번도 교회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다. 그들은 예배도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도 모두 집안에 숨어서 한다. 지하교회의 숫자나 여기에 속해 있는 신자들의 숫자도 이란 기독교인의 전체 숫자에 비하면 매우 작다. 기독교인들의 단 5% 정도만이 지하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위성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의 ‘얼라이브 글로벌 교회’와 여기서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가 이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것이 이란 신자들이 예배드리고 소속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형태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란인들이 위성을 통해 생방송으로 교회 7을 시청하며 예배하고 있다.

이슬람의 영적 결박으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의미에서 이란 사람들의 마음에서 베일이 벗겨졌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이슬람에 대한 개인의 독립적인 사고와 질문들을 금한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 무슬림들조차 정해진 답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고를 요하는 질문 앞에서 순간 얼어 붙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지금 이란에서는 논리를 사용하고 이슬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다른 이슬람 국가와 달리 이란에서는 점점 더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다른 대안들을 찾고 있다.

약화되고 있는 유대인 증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는 점차로 약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과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 놀랍게도 많은 무슬림들이 유대인을 증오하고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정부 주도로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면 사람들은 “당신들을 믿지 않아.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증오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도대체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거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우리의 적이야!”라고 반문한다.

이란은 오랜 시간을 거쳐 영적 기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특히 지난 해부터 이런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출처: <https://homozshariat.com/2019/03/08/then-and-now-part-1/>





ISIL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나디아 무라드

글: 이페코 이즈지

(이스탄불, 휴리예트 매일 뉴스,
3/24/2019)

번역: 한국 번역팀

전 세계적 지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지디 여성을 강간하고 고문한 ISIL 무장단체 중 그 누구도 아직 사법처리가 되지 않아 실망감을 느낀다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나디아 무라드는 말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격려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와 제 민족을 품었다고 하며,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지쳤어요. 취약계층의 옹호 속에 열심히 일했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녀는 3월 24일 후리예트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나를 매우 화나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라드는 이라크 예지디족 인권 운동가이자 ISIL에 의한 성 노예 생존자이며, “무력 충돌과 전쟁 무기로서 성폭력 사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2018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ISIL 무장세력의 고문을 받은 많은 여성들이 그들이 겪은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힘들어했다”라고 그녀는 회상하며 “저는 그들을 격려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SIL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이 겪은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ISIL 무장단체들 중 어느 누구도 아직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녀도 말하기를 주저했던 것을 떠올리며 폭력과 강간 피해자들이 종종 수치심을 느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ISIL에서 탈출할 기회가 없었던 수천 명의 여성과 소녀들의 운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ISIL이 한 일을 모든 곳에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희생자들로서 ISIL이 한 일에 대해 침묵한다면, 누가 그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라고 그녀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무라드의 어렸을 때 꿈은 시리아 국경 근처 이라크 신자르 지구의 코초 마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이 달라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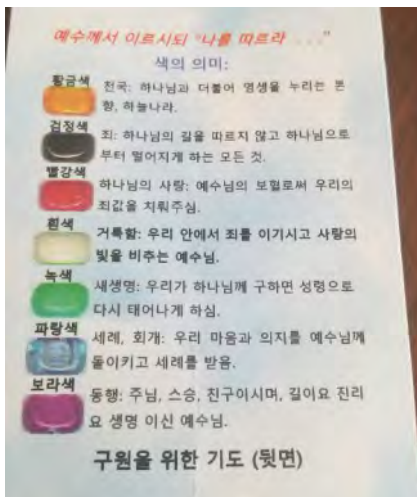
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ISIL을 법정에 세워 세계를 테러리스트와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습니다. 정의, 평화, 평등, 그리고 휴머니즘을 위해 나아 가고 싶습니다.”

출처 : <http://www.hurriyetdailynews.com/nothing-changed-at-all-for-isil-sexual-violence-victims-nobel-laureate-nadia-murad-142139>



뷰육아다 사역 복음팔찌 도네이션 김은경 권사 인터뷰

SWM아웃리치 사역에 사용되는
복음팔찌를 매년 도네이션해 주고
계시는 김은경 권사님과 서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나눕니다.



Q 복음팔찌를 만들게 되신 경위를 말씀해주세요.

A 2014년 처음 터키 비전트립과 뷰육아다섬 사역을 참가하게 되었는데, 뷰육아다섬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물려올 때 저희팀은 찬양을 부르고 자매들과 포옹도하고 팔목에 복음팔찌를 채워주며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종일 서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사역했는데 저에게 뷰육아다섬 사역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지요. 그 뒤로 복음전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복음팔찌를 만들어 보내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올해 4월 아웃리치사역을 위해 14,000개의 복음팔찌를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요?

A 각기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1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시간 나는대로 틈틈이 만들어서 모은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씨뿌리는 사람들의 기쁨(Sower's Joy)이라고 지었습니다.

Q '씨뿌리는 자의 기쁨'이라는 이름이 참 아름답네요. 사역을 하며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요?

A 복음팔찌를 만들다보면 팔이 아파서 만들지 못 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면 곧 힘을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복음팔찌는 선교의 도구로 아주 적합합니다. 7가지 색상의 구슬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줍니다. 각나라의 언어로 설명된 전도지와 함께 나누어 주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잘 받아 갑니다.

저희가 만든 복음팔찌는 여러나라 (인도, 베트남, 브라질, 혼두라스, 케냐, 과테말라, 요르단, 멕시코, 터키 난민) 선교지와 미국내 양로원 전도사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3월말까지 약 2만개의 복음팔찌를 전달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복음팔찌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4월 아웃리치는 13개팀 15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복음팔찌는 4/23일 뷰육아다섬 전도사역과 각팀별 난민사역에 아주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복음팔찌 제작에 함께 해주신 씨뿌리는 사람들의 기쁨(SOWER'S JOY) 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터키 현정부의 마지막 지자체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결과 정리 요약

터키 사역자 김선희

1. 세상의 권세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위엄은 주님의 정하신 뜻가운데 있기 때문에 권위자에 대해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초래 할 것입니다. 통치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싶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권위자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권위자는 우리에게 유익을 베풀 수도 있지만 그 권위를 거스르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진노의 댓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권위자에게 복종해야하는 것은 오직 진노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선한 양심 때문에 권위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신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낯선 로마 땅에,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지배층의 권위자 통치 아래서 자신들의 생사가 쉽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땅에 살던 이방인 유대인들이 로마 통치자들의 권위에 복종했던 것은 단지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아래 처벌이 두려워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보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판단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국가 원수나 통치자들에게 자신 의무와 존경을 표하는 것은 불가능한 행동이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를 당하고, 개인의 자유가 빼앗기며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이가 권력자에 대한 존경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 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주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세상의 권력자와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해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 시련과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절대적 권력자의 정책에 거스르는 종교적 행위에 반기를 들게 되면 그들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쉽게 비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로부터 당할 두려움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한다면 우리는 귀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십자가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무는 십자가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권 아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땅에 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 가득 채워질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세상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으로 세상 두려움을 이겨낼수 있도록 말입니다.

2. 지방 자치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결과

지난 3월31일 터키의 81개주에서 지방 자치장 선거와 957곳의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터키 경제 중심지인 대도시 이스탄불, 수도 앙카라와 이즈미트 등 21개의 주요 도시에서에서는 야당의 대표자 후보자들이 많은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터키 국민들이 계속되는 경제적인 불황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궁핍한 삶을 종식시키고 싶은 간절한 소망 속에 지금의 여당이 아닌 야당에 많은 표를 몰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터키 국민들은 현정부에 대해 불신하고 있고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질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매달 받는 연금이 물가 상승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정부가 복지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고 있기에, 현정부에 대해 무능력을 비판하면서 반대편 세력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불이익이 개인의 삶과 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기에 더이상 그 통치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터키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밀집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은 지역 경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가지 않고 있음을 체감하며 심한 우려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긴장감을 야기하는 테러의 위협, 국제적 균형 감각을 갖추지 못하는 서툰 외교 정책, 높은 실업률과 이직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정한 요소들로 인해 사람들의 불만은 누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누적된 불만이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 선거 결과 현정권에 집중되었던 권력이 민주 국민당 CHP에도 분산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터키인들은 권력이 분산되지 않으면 터키의 미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민주 국민당 CHP에 많은 표를 찍어주어 권력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



2019년 3월 31일 선거 최종 발표 이후, 대통령 에르도안은 그의 정당 AKP의 후보자가 당선된 것처럼 현수막을 준비하여 이스탄불 거리 곳곳에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거 불승소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지지자가 반드시 이스탄불 시장이 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전직 수상: 비나르 엘드리크와 대통령 엘도안

2019 YEREL SEÇİM HARİTASI



2019년 3월 31일 터키의 지방 자치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정부가 이끄는 정의개발당 AKP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높은 숫자의 지방 39개 지역구에서 시의원들이 당선 되었습니다.

이번 투표의 결과를 보면 서쪽의 대부분의 큰 도시들은 야당인 CHP를 지지하며 동쪽으로 갈수록 여당인 AKP를 지지했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

- 자주색은 민주국민당 CHP - 21개 지역
- 주홍색은 정의개발당 AKP(현정부) - 39개 지역
- 푸른색은 이슬람 정당 MHP - 11개 지역
- 보라색은 쿠르드당 HDP - 8개 지역

3.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세



터키 현직 대통령 에르도안은 2002년부터 수상직 내각 집권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었다. 그의 정치적 성공은 여러 차례 개헌을 통하여 입증되었으며, 2023년까지 막강한 권력과 함께 터키에서 가장 오래 장기 집권한 통치자로 정치 경력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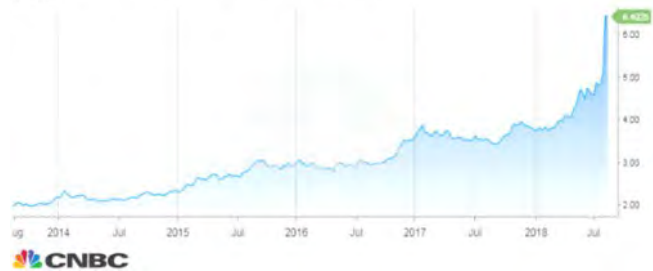
에르도안은 2002년 그가 세운 정당인 정의개발당 AKP와 함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인 경제 성장을 우선 순위로 세웠다. 그는 터키의 경제가 유럽의 자본을 잠식할 것이며, 터키의 젊은이들은 유럽에서 최고의 값진 노동자가 될 것이며, 유럽 공동체 연합에서 큰 능력을 나타낼 것이며, 유럽의 많은 자본들이 터키로 유입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터키의 모든 언론과 국민들은 마치 터키가 유럽 연합에 가입한 것처럼 들떠 있었으며, 유럽의

기대치에 상응하는 인권보호 운동이 조금씩 진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그의 인기도와 함께 가는 곳곳마다 세계 언론들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국제 경제 회의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정치적 비난, 2014년 로마 카톨릭 교황의 아르메니안 대학살 연설의 비판 등은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터키의 세속화 정책에 반대하는 입법을 만들어, 공공기관에서 여성들이 종교적 상징인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공직을 수행 할 수 있게 했으며, 공립 이슬람 학교를 세워 아이들의 종교심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각 지방의 대학마다 이슬람 학과를 개설하였으며, 팔만 개가 넘는 모스크를 전국적으로 세웠습니다. 게다가 그는 터키인의 정체성은 신실한 무슬렘 신앙에 바탕을 두었다고 강조하면서 민족주의 우월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터키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이스탄불 도시 전체를 거대한 빌딩 숲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과도한 건설 공사와 국제 남발을 야기시

켜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된 부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연간 인플레이션 20% 이상을 넘어 갔습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견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위하여 중앙은행 금리를 24% 인하시켰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지난해 금융 통화 위기가 왔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융 시장의 혼란을 부추인다고 경고 했지만, 은행들은 정부의 허락없이 조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미국인 목사 앤드류의 자택 감금과 함께 미국의 무역 보복의 정책의 영향으로 갑자기 달러 환율이 두배로 뛰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에르도안 정부는 경제 압박의 원인 제공이 미국의 관세를 입고 있는 기독교 세력과 선교 활동을 하는 외국 사역자들 때문이며, 앤드류 목사의 감금에 대한 보복의 결과라고 공공 언론기관들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지역에서 장기 선교사들이 거주증을 받지 못하거나 비자 연장을 못했으며, 어떤 사역자들은 공항에서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US Dollar/Turkish Lira FX Spot Rate
5 Year



4. 사역자들의 기도제목

- 터키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역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받을 위험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상의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면서 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진정한 제자 양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질의 유익을 얻으려고 거짓증거로 형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하여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었던 그 마음이 사라지게 하소서. 그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역자들이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거나 거주증을 받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일을 막아주시길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역자들이 이유없이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당할 불이익과 어려움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일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적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는 터키와 흑해지역

글 : 안바울 사역자
(터키 안디옥 개신교회, 3/7/2019)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터키가 영적으로 쫄쫄 얼어붙은 동토의 땅이라는 사실을 오랜 시간 동안 발견하고 경험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곳의 영혼들이 복음을 강하게 거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터키는 종교적인 정체성과 국가적인 정체성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터키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돌아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나 국가에서 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 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과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1923년 터키공화국이 시작됨에 따라 21세기 중반에 개신교 사역자들이 터키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보면 여전히 그리스도인 인구의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즉 터키 인구 8천만 중 터키 그리스도인은 겨우 6,000명이고 터키인 아닌 그리스도인이 수천 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동안, 영적으로 얼어붙었던 터키에 해빙의 기운이 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 터키 인구의 구성을 보면 인구의 반 이상이 30세 미만의 젊은이와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주변의 강요에 의해 종교를 갖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슬람 외에 다른 영성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영성과 정체성의 기반을 탐구해나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제니 화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른 세대들이 강요한 이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갔었는데 최근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영적인 진리를 찾으려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정체성의 기초를 선택하려는 시도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KONDA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터키 젊은이들의 종교적 비율이 2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하락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터키 정부가 “경건하고 독실한” 무슬림 세대를 일으키려는 굉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락을 보였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과 이라크와 같은 중동 지역에서 그리스도인 망명자들이 대거 터키에 들어오면서 터키의 영적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터키로 온 그리스도인 망명자들 중 많은 이들은 열정적인 전도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터키어를 잘합니다. 이 망명자 중 많은 사람들이 터키 정부의 허락을 받고 터키에 정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흥미 있는 것은 이들이 정부의 허락을 받고 거주하게 된 지역들은 다른 외국인 사역자들은 거주하기를 받기 어려운 곳들을 볼 수 있습니다. 터키에 거주하게 된 그리스도인 망명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있는 터키인들 뿐 아니라 다른 망명자들과 이민자들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복음에 반대하며 저항하는 터키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망명자들을 터키 전역에 두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터키에서 가장 국수주의적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들 중 하나가 바로 흑해 지역입니다. 200명 미만의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삼순 개신교회의 사역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오르한(Orhan) 목사님이 2003년에 이 삼순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르한 목사님은 무슬림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1995년에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120명 이상의 성도가 있는 교회로 성장해나갔습니다.

삼순교회는 터키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페르시아인, 이라크인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학생들과 같은 다인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 멤버들과 사역 동역자들은 몇 년 간 그 지역 일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은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삼순 교회는 오르두와 시놉(sinop)과 같은 인접한 도시들에 교회를 개척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는 삼순교회의 건물이 완공되었고 이 교회 건물은 흑해지역의 사역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순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흑해 전역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흑해지역 내에 4시간 운전해서 갈 수 있는 반경 내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는 삼순교회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흑해지역에 다른 도시들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해빙기를 맞아 지역적으로 훈련된 터키, 아랍, 페르시아 교회 개척자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소망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훈련된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개척하게 될 교회를 통해 흑해지역에 있는 도시들, 터키 전역, 더 나아가서는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디옥 이레학교: 시리아 난민자녀 사랑터

글: 박조디 사역자(안디옥, 터키)



안녕하세요 터키 안디옥(수리아) 땅을 섬기고 있는 박조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여기는 완전한 봄이다 못해 가끔은 덥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곳 안디옥에 온지는 만 12년이 되었고, 터키인 공동체 예배와 시리아 공동체 예배를 섬기며 또 주 중에는 교회에서 작게 시리아 난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학교 이름은 이레학교 입니다. 여호와 이레(Jehovah-jireh, The LORD will provide, 창22:14)는 '여호와께서 준비(예비)'하심이란 뜻으로 시리아 난민 아이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예비하신다는 뜻에서 제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레학교를 시작하기 전 저는 어린 쌍둥이 딸과 아들을 키우면서 선교사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터키땅으로 왔지만 저는 그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버거워 우울증에 빠져있었고 무기력하게만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더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저를 진정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라고 물었고 그때 "아직 이 땅에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대 초반에 단기선교지에서 보여주셨던 꿈과 환상을 환기시키시면서 시리아 난민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레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 4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레학교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레학교 청소년모임도 생겨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리아 아이들이 이레학교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그의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영접해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 이레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무슬림이었지만 100% 모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은혜의 맛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장래희망이 이레학교에서 선생님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을 돌보기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는데 익숙하고 늘 폭언과 폭행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 해서 갑자기 그들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남자 아이들 여러 명이 협박용 칼과 흉친 주얼리를 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왔다가 교사 모두를 경악하게 했고, 성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아이들이 동성의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 등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늘 문제의 연속입니다. 또 청소년 모임 안에서 마약문제와 게이문제, 최근엔 현금 도난사건까지 영적공격이 얼마나 심한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임을 더 입증하는 것임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아침 말씀 시간이 계

속 될수록, 또 청소년 모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박힐수록 사탄은 그것을 싫어하고 이 모임을 흔들려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 이레학교 사역을 통해 아이들이 자라게 하심도 보지만, 무엇보다 이 사역을 섬기는 저와 교사들이 함께 자라게 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던,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울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지 기도 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순간 순간 이 모든 사역이 저에게는 너무 큰 짐처럼 느껴져 힘들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를 위해 이들을 위해서 울며, 누가 나를 위해서 이들에게 내 사랑을 전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주 하십니다. 부족하기만 저를 사용하신다니 - 사용하고 싶으시다니 -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할 따름이지만, 변하지 않는 아이들, 그의 가정들, 늘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찬 그들의 마음을 보면 절망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저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사랑보다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내가 제 인내보다 한없음을 알기에 그저 저를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을, 이 청년들을 품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때까지 이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있고 싶습니다. 제 시간과 열정과 제 은사가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 하고 싶습니다.



하비비 인터뷰

글: 이세웅 편집인
simonlee@silkwavemission.com

- 이** 이세웅
실크웨이브 선교회 실행 총무
- 월** 하비비선교회 대표
- 아** 월리의 아내

이 지난 번에 당신과 이야기 할때 당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의 아내가 함께 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와 함께 인터뷰하게 되어서 더욱 기쁘네요.

월 네, 사실 제 아내는 하비비 인터네셔널 단체에 깊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럼 아내분은 하비비 인터네셔널이 시작 될 때부터 함께 하셨나요?

아 네, 저는 임상 간호사예요. 그래서 하비비 메디컬 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아 그렇군요. 미국에는 언제 오셨나요?

아 1994년에 왔어요.

이 아 그럼 미국 시민권자시군요?

아 맞아요.

이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어디서 사셨나요?

아 저는 대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만다린어와 대만어를 할 수 있어요.

이 그러시군요.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 하비비 단체를 시작하게 되셨네요. 그럼 주님은 언제 만나셨나요?

아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적 빨리, 십대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 두 분이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대만에 있었는데 대만에 선교사로 있었던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만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아 이제 이곳은 우리에게 집과 같은 곳이지요. 저를 미국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중 일부였습니다. 저를 훈련시키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하비비 국제 단체는 왜 설립하게 되셨습니까?

월 우리의 비전은 지역 교회 및 NGO와 협력하여 인도 주의적 지원과 구호를 제공함으로써 북 이라크 및 중동 전체 지역의 의 난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 첫번째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을 비롯하여 좀 더 많은 아시아인들이 중동의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토대)을 조직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중동에서 사역한 아시안 사역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두번째는 아시아인들이 난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난민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단체나 국제단체 등을 통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아시안교회들이 큰 구호단체나 선교단체와 연결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중동의 NGO를 주도하는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 단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안계 미국 교회의 중동 지역 사역을 보다 쉽게 돕기 위해 플랫폼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4년 간 아시안계 미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의료 보건 분야의 사람들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선교에 참여하고 싶어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와 선교 채널을 찾지 못해 선교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아시안계 미국교회의 장기적인 난민 선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다 완벽한 플랫폼 만들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재평가하고 수정하였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NGO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비전은 아시안계 미국 교회가 난민들을 위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또한 난민들에게 탁월한 도움이 되는 NGO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시에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내분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비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아 우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일이었고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아르바크르에서 온 이메일을 받고 2015년 7명의 의료진들과 터키의 디아르바크르를 처음 갔을 때부터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계속 될 줄 알았던 디아르바크르 사역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



이 북이라크였습니다. 제가 첫번째로 북이라크에 간 것은 2016년 4-5월이었어요. 그때는 의사인 다윗과 카니니, 그리고 저를 포함한 간호사들 다섯이 함께 했습니다. 북이라크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밖을 보니 추수할 때가 되어 황금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곡식은 추수할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북이라크에서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북이라크에서 우리 사역의 첫 시작이었고, 돌아온 후 우리는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 사역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각 교회에서 선교하기 원하는 사역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많은 선교팀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웹사이트도 없었고, 한교회에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적이지도 않았고,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했고, 우리가 하는 사역의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동의 선교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NGO, 비영리 단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선교적 플랫폼을 만들고 하비비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우리의 비전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비비 단체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왜 예지디를 선교지로 선택하셨나요?

월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지디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고 선교지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심지어 예지디는 무슬림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지디에는 비교적 적은 인구의 사람들과 난민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역이 단지 예지디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시리아와 아랍족의 난민들 역시 우리의 사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렇다면 당신에게 중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월 우리의 선교사역은 중동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는 중동을 좁은 관점으로 바라 보지 않습니다. 저는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북이라크 너머 레바논을 비롯한 해안국가들과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향해 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동에는 점점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북이라크 다음으로 시리아로 보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시리아에서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리아로 부르셨다고 믿고 있고, 언제든지 시리아에 가서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서두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리아가 향후 20년동안 활발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선교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리아가 개방되면, 수많은 NGO와 기관들이 들어가 활발한 난민 사역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아시안 미국 교회는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있어 몇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사역과, 교육사역, 소규모 비즈니스 사역 등이 바로 그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아시안계 미국 교회에 내재된 선교적 능력을 심분 활용하고 싶습니다. 하비비 단체가 모든 사역 분야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역 분야들을 아시안계 미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맞습니다. 우리 선교회를 후원하는 교회 중 절반인에 위치한 한 한인교회에만 해도 170여명의 은퇴한 의사가 있다고 하니 교회와 선교단체의 협력사역 또한 중요합니다.



월 그렇습니다. 알바인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가정교회에도 17명이 넘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시안계 미국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키기 위한 분명한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동역할 수 있을까요?

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은 다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때 참여한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들이었을 지라도, 우리는 국적과 인종의 차별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사역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으며, 현재 동역하는 단체 중 하나인 GDA에도 한국인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십 사역, 동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우리는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료 사역 및 차세대 교육 사역 등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율리 형제의 말처럼 하나님 나라 선교사역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우리는 사역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한가지 더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사역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여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 사역이 놓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역 참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의 만남 등을 통해 지역 교회와 우리 단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지역 교회 성도들 전체, 혹은 일부는 중동의 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며 비록 지역 교회와 관계를 맺고 동역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의 핵심 가치라고 믿습니다.

이 이것이 바로 우리 선교회가 지역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역 교회와의 협력없이 사역하지 않는데, 사실 지역교회와 동역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질 때,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월 네. 이것이 바로 제가 기대하는 사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많은 지역교회의 참여를 위해 지역교회의 목사님들과 일대일로 만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계 미국교회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월 저는 사실 한국계 미국 교회, 중국계 미국 교회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중앙 아시아에서 사역을 시작한 1990년대부터 저는 중국인 사역자보다 한국인 사역자, 혹은 한국계 사역자들과 더 많은 사역을 함께 했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사역자가 한국인이거나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교회들이 하비비 단체와 협력하여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동역의 길로 초대합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세대를 포함하여 다음 세대까지 이미 많은 한국인과 중국인 사역자들의 국제 결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도 한국인과 중국인들, 즉 우리는 반드시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인종을 넘어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힘은 강력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그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난민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2019 교회개척 리서치트립안내

터키, 이집트 그리고 북이라크 쿠르디스탄에서 진행되는
교회개척운동과 난민돕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미국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합니다.

일정(터키시간): 2019년 10월 29일(월)~11월4일(월)

- 10/28(월) 미국출발
- 10/29(화) 한국출발
- 10/30(수) 앙카라 방문
- 10/31(목) 터키 동부 아라랏산(노아방주) 반 방문
- 11/1(금) 반, 아크다말 섬 Holy Cross 교회 방문, 디야르바크르 이동
- 11/2(토) 디야르바크르 방문, 하란 / 수루치 / 가지안텨 방문
- 11/3(주일) 가지안텨 교회, 안디옥 방문, 동굴교회
- 11/4(월) 안디옥 - 이스탄불 - 미국.한국으로
- 10/29(화) 이스탄불 도착
- 10/29(화) 이스탄불 도착

등록문의: 이성국 간사(714.999.8639) | 한국: 임동혁 간사(010.8632.0278)